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404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르 13, 33-37)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르 13, 33-37

예수님께서서는 다가올 종말을 희망과 믿음의 기다림 속에 깨어 있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이는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영적 생활태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주님의 도래는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사는 이들을 영원히 당신 나라로 맞아들인다는 기쁜 소식의 선포입니다.

희망과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들의 자세는 ‘깨어있는 것’ 입을~. 예수님께서서는 문지기의 비유로써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을 충실히 실천하며 깨어 기다린다면 주인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셔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그날의 징조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보다는 그날을 위해 각자의 몫을 충실히 하며 깨어 있는 자세로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중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라도 깨어 있기를 권고하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 순간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깨어 있어라”(37절)는 것은 심판과 단죄에 대한 두려움에 찬 경계가 아니라 바위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항상 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알 수 없는 종말의 때를 두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함을 갖기보다는 희망으로 받아들여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깨어 있으라’는 요청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볼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안일한 삶의 잠에서 깨어나 단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합시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33절

"신명기의 내용과 구조!"

5분 신앙상식

그리스어 명칭인 '듀테로노미온'은 '두 번째 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는 '율법을 베깁.'이라는 뜻입니다(신명17,18참조).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압 땅에 도착한 이후 죽음을 맞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한 연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저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탈출기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긴 여정을 회고하는 모세의 유언을 통해 전달합니다.

1장- 4장 : 호렙산에서 요르단 강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5장-11장 : 주 하느님만을 섬기라는 설교. 신명기판 십계명.

12장-26장 : 소위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법과 규정들을 담고 있음.

27장-28장 : 계약을 잘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데에 따르는 축복과 저주.

29장-30장 : 계약을 충실히 지키라는 권고.

31장-34장 :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 임명,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 모세의 죽음을 담고 있음.

공지사항

-위령 성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세상을 떠난 모든이와 연옥영혼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시다.

다음 달 성경말씀

루카 1,26-38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생활에서 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 때문에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까?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웹미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땀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볼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정수원 찬송가
권정수 작곡

기도하며...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두가여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지 않겠무아

중기 하고 봉사하자 세상모두에게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천국으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